



전북대병원, 새싹지킴이병원 간담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새싹지킴이병원 관계자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대학교병원은 11일 지역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전북 광역·지역 새싹지킴이병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역 및 지역 전담의료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 본관 3층 은고을홀에서 전북도 관계자와 도내 20개 새싹지킴이병원 전담 인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작년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추진 계획과 기관 간 효율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장수경찰서, 장계면민의 날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

장수경찰서(서장 이여정)는 지난 10일, 장계면민의 날 행사를 찾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홍보는 경찰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어르신 방문이 많은 지역행사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홍보를 펼쳤다.

또한 최근 부임한 이여정 경찰서장도 행사장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전한 보행 습관과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수=고판호 기자

고창경찰서, 설문조사 결과 반영 맞춤형 치안활동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전북경찰청이 추진 중인 '소중한 목소리 경청'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활동을 추진하며,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소중한 목소리 경청' 설문조사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이나 위험을 느끼는 시간과 장소, 이유 등을 직접 제안하면 경찰이 이를 분석해 치안정책과 예방 활동에 반영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이에 고창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은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된 의견 가운데 "야간에 골목길에 어두워 불안하다"는 주민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를 요청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민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촌에 활력을,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다'

제13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성료... 완주 서두 등 5개 마을, 지역 분야별 최우수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도청 공영장에서 제13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마을만들기 및 농촌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의 전북 예선으로, 농촌 공동체 회복과 주민 역량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도는 시군 자체 평가를 통해 분야별 대표 마을을 추천받은 뒤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마을만들기 분야 4개 마을, 농촌만들기 분야 2개 지역, 농촌환경개선 분야 2개 지역을 본선에 선정했다. 이후 발표평가와 퍼포먼스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마을만들기 분야에서는 완주군 서두마을과 무주군 두문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주군 서두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인 토종생강을 기반으로 가공·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경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마을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공동체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군 두문마을은 주민들이 복원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이 함께 지역 활성화에 나서는 공동체 모델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고창군 유점마을은 마을서당인 강학당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주민, 어르신이 함께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이어나가며 농촌다움을 지켜온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



상했다. 남원시 제천마을은 마을기업과 태양광 사업을 연계한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환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동체 중심의 마을 가꾸기를 실천한 점이 돋보여 장려상을 받았다.

농촌만들기 분야에서는 정읍시 칠보면과 진안군 용담면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촌환경개선 분야에서는 남원시 주생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주민위원회가 최우수상을, 김제시 죽산면 오후협동조합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분야별 최우수상을 수상한 5개 마을·지역은 오는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해 전국 각지의 우수 마을과 경쟁하게 된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주민 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진안군, '진안방문의 해' 맞아... 제26회 심청이상 시상식·함께하는 가족한마당 개최

전북 시각장애인들의 화합과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26회 심청이상 시상식' 및 함께하는 가족 한마당이 11일 진안군 문예체육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심청이상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이해를 돕고 효(孝)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이번 행사는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백창호)와 진안군지회(지회장 김춘심)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026~2027 진안방문의 해'를 맞아 진안군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시군 시각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과 2부 함께하는 가족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내빈 축사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행을 실천하고 장애인복



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심청이 상'을 수여했다. 이어 열린 2부 '함께하는 가족한마당'에서는 문화공연과 회원 장기지당,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덕과초 1학년 학생들, 직접 모은 종이팩 등 전달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 10일 오전, 덕과초 1학년 학생들이 직접 모은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직접 체험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 아이들은 그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꾸준히 모은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덕과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화장지로 교환하며 자원재활용의 가치를 배웠다.

덕과초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종이팩을 씻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며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몸소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박종만 덕과면장은 "환경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으로 종이팩과 건전지를 모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준 학생들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진행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6월 10일 성원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 교실은 남원시의회 임직속 사무국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의회 홍보영상 시청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선배와의 만남 △분회의 체험 △의회 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었다.

특히, 성원고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스스로 발굴하고 준비한 '학교 내 휴대폰 사용 허가의 건'과 '등·하교 시간대 버스 시간표 및 배차 간격 개선 건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열린 찬반 토론을 펼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한전과 안전사고 발생 대비 합동훈련

남원소방서와 한국전력공사가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협력했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북 남원시 이백면에 위치한 신남원변전소 가공송전 실습장에서 소방 당국과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사고 및 화재 상황 발생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복합적인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과 한전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현장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 현장에는 식정 119안전센터의 굴절차(5층용), 펌프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총 4대의 특수 소방 차량이 동원되어 실정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됐다.

이날 훈련 내용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상황 기반 훈련 운영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2차 사고 방지 훈련 △대원 간 역할 분담 및 팀워크 강화 △잠비 운용 숙련도 향상을 위한 단계별 실습 등이며, 실제 변전소 등 전력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 진압부터 2차 피해 확산 차단, 신속한 인명 구조까지 단계별 임무 숙달에 중점을 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8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8329-6877

익산지사

658-9923

남원지사

632-38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88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899

임실지사

010-98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8157

무주지사

010-4172-3800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